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사회계(오후)>

1.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가]

사회는 저 멀리 우뚝 선 산이나 바위처럼, 그리고 도도히 흐르는 강처럼 인간들의 외부에 당당히 존재한다. 길을 걸어가다 산이나 바위 혹은 강이 방해가 된다고 없애거나 옮길 수 없듯이, 사회도 인간 개개인의 좋고 나쁨에 구애받는 그런 유의 것이 아니다. 개인적 호불호에 의해 사회에 무모하게 덤벼들 경우, 바위에 던져진 계란과 같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은 그것을 감행한 특정 개인일 뿐이다. 군대가 싫다고 해서 무작정 탈영해보라. 그 다음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도 모두가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는 단순히 사회 구성원 각각의 행위와 이해관계의 집합 이상의 고유한 실체이다. 사회적 사실은 외부에 존재하며 개인의 삶과 지각의 범위 밖에 존재한다. 또한 사회적 사실은 개인에게 강압적 힘을 발휘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행동한다고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사회적 사실에 순응하는 것이며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즉 사람들은 스스로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방식을 따를 뿐이다. 또한 사회적인 차별이나 사회적으로 거절하는 방식 등을 통해 사회는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강제한다.

[나]

만약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이 그토록 자유롭다고 한다면, 만약 그가 자신의 신체와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인 주인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과도 평등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체 그는 왜 그러한 자유와 결별하는 것일까? 왜 그는 이 같은 지배권을 포기하고 자신을 권력의 지배와 통제 아래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이들을 객관적으로 중재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이 없이는 자연권의 보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러한 불안정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향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일부 위탁하는 계약을 맺고 사회 공동체를 결성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는 사람들의 의식적인 행위와 노력으로 형성된 산물이다.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에 양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모든 사람이 그 자신, 그의 자유 및 그의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다. 사회의 권력 또는 사회에 의해서 구성된 입법부의 권력이 공공선을 넘어서까지 확대된다고는 결코 상상할 수 없다. 국가의 입법권이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즉흥적인 법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공포되어 널리 알려지고 확립된 일정한 법률로 다스려야 한다. 그는 또한 공평무사한 재판관을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그러한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물리력은 국내에서는 오직 그러한 법의 집행을 위해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공동체의 안전을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인민의 평화, 안전 및 공공의 이익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다]

자국 문화에 젖은 미국인은 체중을 조절하는 것은 개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미국 보건당국은 시민에게 자신의 허리둘레를 주시하면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하라는 충고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충고를 따르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개인에게 달렸다. 만약 체중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언제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이것은 매력적인 원칙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위선이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노력이 좌절되기 마련인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중을 감량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딪히는 장애물도 많을 것이고 실제로 극복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개인의 의지와 노력은 비만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전문가들 대부분이 비만인구의 증가가 경제적 양극화, 선진국 유통업체의 확산과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수많은 연구들은 그 사실을 간과했다. 개인의 생활방식에 대한 간섭과 비만 약물의 효과에 대해 이제 현실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때이며, 비만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의 치료보다는 공중보건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 2008년 7월에 영국 보건부장관도 환경적 요인을 무시하면서 개인의 책임에 비중을 두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표명했다. 그는 산업계를 포함한 전 부문을 향해 함께 비만을 막는 일에 참여하자고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우리의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라]

우리들에게도
생활의 시대는 있었다.

백제의 달밤이 지나갔다,
고구려의 치맛자락이 지나갔다,

왕은,
백성들의 가슴에 단
꽃.

군대는,
백성의 고용한
문지기

앞마을 뒷마을은
한 식구,
두레로 노동을 교환하고
쌀과 떡, 무명과 꽃밭
아침 저녁 나누었다.

서로, 자리를 지켜 피어나는
꽃밭처럼,
햇빛과 바람 양껏 마시고
고실고실한 쌀밥처럼
마을들은 자라났다.

지주도 없었고
관리도, 은행주도,
특권층도 없었었다.

반도는,
평등한 노동과 평등한 분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그 위에 백성들의
축제가 자라났다.

늙으면 마을사람들에 싸여
웃으며 눈감고
양지바른 뒷동산에 누워선,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남겼다.

[마]

정당은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유지하며 개선하는 기능을 한다. 정당이 이러한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정당과 정당체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유권자의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은 이러한 제도화된 정당체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정당일체감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국의 미시간(Michigan) 학파가 수행했다. 미시간 학파의 연구자들은 『미국유권자』라는 책에서,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내면화된 심리적 애착심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정당일체감이 다른 어떠한 요인들보다도 유권자가 투표결정을 내리는 데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정당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치적 평가를 내리는 데 정보의 다양성 및 복잡성을 단순화 시켜주고 단서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유권자들은 특정한 정당을 매개로 하여 정치적 선호를 형성하고 정치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2000년 0월에 치러진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바로 그러한 경우였다. 구체적으로, 야권은 정부에 대한 심판을 내세우며 집권여당을 비판하였고, 여당은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통해 정권심판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나 품성은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였고, 정당 간의 대결구도만이 부각되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그러한 경향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주요 정당들이 당명을 바꾸고 당 조직을 재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이들 정당에 대한 일체감을 근거로 하여 투표결정을 내렸다.

[바]

유럽연합(EU)에서 대마초 소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다. 2014년 현재 프랑스에서는 1,400만 명이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한다. 18~64세 인구로 보면 42%가 대마초를 소비했는데, 이는 2010년보다 9%나 증가한 수치다. 프랑스는 1970년부터 대마초 금지 법안을 시행하여 대마초를 불법 제조하거나 유통하면 최고 30년의 징역과 750만 유로(euro)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제연합(UN)도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거래 방지' 국제협약을 1988년에 제정하여, 의료 목적 외에 대마초를 유통하거나 제조하면 처벌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대마초 문제를 법과 제도에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들은 공급자에 대한 정부 단속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역설한다. 프랑스에서 정부 단속 때문에 대마초 1g이 평균 6~7유로 선에서 비싸게 거래되고 있고, 이로 인해 판매자의 수입이 증가하여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이들은 대마초 흡연의 심각성에 관한 홍보를 통해 자율적 의지로 수요를 줄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거래량과 가격 모두가 감소하여 지하경제의 규모가 축소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개인 차원의 의식 개선이 대마초 흡연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사]

사람에게는 자신의 배경을 바탕으로 누리게 되는 일상적인 경험이 있다.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는 동안 그것이 신체에 각인되면서 결국 그에게는 하나의 문화적 습성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아비투스(habitus)**라고 부른다. 노동자 계층과 경영자 계층이 선호하는 음식이나 스포츠, 정치적 견해와 문화적 취향, 그리고 미적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실은 이 **아비투스**의 차이 때문이다.

아비투스는 일종의 버릇 또는 습관이다. 버릇은 실천을 낳는다. 그런데 그 버릇은 사회적이다. 사회적이라는 말은 집단적이라는 뜻이다. **아비투스**에서 개인적 주체와 사회적 주체가 만나서 뒤섞인다. ‘나’라는 존재의 행위는 오랜 사회적 역사 속에서 형성된 버릇에서 비롯된다. 이 사회적 버릇은 나와 사회를, 행위와 구조를 매개한다. 가령 한국인인 철수의 영어발음과 인도인인 아밋의 영어발음은 국적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철수와 아밋의 영어발음은 개인의 문화적 습성이 축적되어 형성된 것인 동시에 다른 한국인 또는 인도인이 비슷한 영어발음을 집단적으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이다.

아비투스는 저 밖에 외재하는 실재가 아니라 행위자에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행위자의 ‘몸’에 내재한다. **아비투스**는 행위자의 의식과 관념, 앎을 포함하되 그 의식과 관념, 앎은 행위자의 몸에 ‘스며들어’ 있다. 예컨대 **아비투스**에 의한 행위는 아무런 의식적 계산 없이도 집에 도달하는 것과 같다. 집으로 갈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계산하지 않는다.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것도 아니다. 우리를 집에 데려온 것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다. 우리의 몸은 단순한 고깃덩어리 혹은 더러운 욕망의 처소가 아니라, **아비투스**가 축적되는 장소다. 몸은 사회적 존재로서 세계의 관계성이 **아비투스**의 형태로 체화되는 장소다.

[문제 I]

제시문 [가]~[바]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 배점 30점]

[문제 II]

제시문 [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 [나]를 평가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문제 III]

대마초의 시장 가격과 거래량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결정되고, 판매수입은 이때의 시장 가격과 거래량 간의 곱으로 계산된다. 가격과 수요량, 그리고 가격과 공급량은 모두 1차 함수의 관계를 갖는다. 정부가 대마초 공급자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을 때,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의 비율을 $-r$, 가격이 0일 때 수요량을 10이라고 하자(단, $r > 0$). 또한,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량 변화의 비율을 0.5, 가격이 0일 때 공급량을 5라고 하자. 만약 정부가 대마초 공급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면, 다른 조건의 변화 없이 각 가격수준에서 공급량이 5만큼 감소한다.

제시문 [바]에 제시된 정부의 대마초 공급자 단속 효과에 관한 일부 분석가들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때 판단 기준이 되는 r 값을 구하고 이를 해석하시오. [수식 및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 배점 30점]

2.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논제 I]

각 제시문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가], [다], [마]는 사회 실재론적 관점을, [나], [라], [바]는 사회 명목론적 관점을 나타낸다.

[가]는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된 실체로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와 행동을 구속한다고 주장한다. [다]는 비판이 단순히 개인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조건과 구조적 환경의 산물이라고 본다. [마]는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개인적 능력과 품성보다는 후보자가 속한 정당을 중시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나]는 사회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정부의 권력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라]는 국가의 개입과 간섭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의지에 따라 일하고 나눠 갖는 가상의 사회를 그리고 있다. [바]는 대마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법과 제도를 통한 처벌보다 개인 차원의 의식개선을 중시한다. (492자)

[논제 II]

제시문 [사]는 사회와 개인의 이분법을 넘어서 이를 매개하는 아비투스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역사가 체화된 형태로 우리의 견해, 취향,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무의식적 성향 체계이다. 아비투스는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적인 것으로 우리의 인체에 각인되어 있다. 아비투스는 가장 개인적인 몸조차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 형성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회가 외부에 있다는 사회실재론과 사회는 단지 개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사회명목론을 둘 다 비판하는 개념이다.

이런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를 평가할 수 있다. 제시문 [가]는 사회가 개인들의 집합 이상이며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실재론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사]에서 사회라는 것이 개인의 외부에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와 교육을 통해 개인의 내부에 존재하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와 개인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고 사회를 우선시하는 [가]는 타당하지 않다.

한편, 제시문 [나]는 사회는 사람들의 의식적인 행위와 노력으로 형성된 인공적으로 형성된 산물이라는 점에서 사회명목론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사]에서 개인은 사회적인 버릇인 아비투스를 통해 자신의 견해와 기준을 가지고 사회를 형성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제시문 [나]에서 제시된 사회와 개인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와 개인을 우선시 하는 관점은 타당하지 않다. (672자)

[논제 III]

Y_D , Y_S , P 를 각각 대마초 수요량, 공급량, 가격이라고 하자. 정부가 대마초 공급자를 단속하기 전, 수요함수는 $Y_D = -rP + 10$ 이고, 공급함수는 $Y_S = 0.5P + 5$ 이다. 이때 시장가격과 거래량은 연립해로서 각각 $P_0 = 5/(r+0.5)$, $Y_0 = (5r+5)/(r+0.5)$ 이다. 따라서 판매수입은 $TR_0 = P_0 \times Y_0 = 25(r+1)/(r+0.5)^2$ 이 된다.

정부가 공급자를 단속할 경우, 수요함수는 그대로이나 공급함수는 $Y_S = 0.5P + 5 - 5 = 0.5P$ 가 된다. 이때 시장가격, 거래량, 판매수입은 각각 $P_1 = 10/(r+0.5)$, $Y_1 = 5/(r+0.5)$, $TR_1 = P_1 \times Y_1 = 50/(r+0.5)^2$ 이다.

만약 $TR_0 < TR_1$ 이면, 정부의 대마초 공급자 단속 후 지하경제의 규모가 오히려 커졌다는 일부 분석가들의 주장이 타당하다. 반면, $TR_0 > TR_1$ 이면, 이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TR_0 - TR_1 = 25(r-1)/(r+0.5)^2 = 0$ 에서 판단기준이 되는 r 값은 1이 된다. 즉, $r < 1$ 이면 $TR_0 < TR_1$ 이나, $r > 1$ 이면 $TR_0 > TR_1$ 이다(또는 $TR_0/TR_1 = (r+1)/2 = 1$ 을 고려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시문 [바]에서 일부 분석가들의 주장은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다.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 비율의 절대값이 특정 값보다 낮은 조건에서만 대마초 공급자 단속 후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졌다는 주장이 옳다. (458자)

3.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1. 점수 배정

- ① 만점 : 논제 당 100점(3논제 포함 300점)
- ② 기본 점수 : 논제 당 60점
- ③ 기준 점수 :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 ①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 ③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 원고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내용이 더 중요)
-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한다.

● <논제 I> (401~500자)

- 200자 미만 :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 200~300자 미만: 감점 20점
- 300자 이상~350자 미만: 감점 10점
- 550자 이상~600자 미만: 감점 10점
- 600자 이상: 감점 20점

● <논제 II> (601~700자)

- 400자 미만 :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 400자~500자 미만 : 감점 20점
- 500자 이상~550자 미만: 감점 10점
- 750자 이상~800자 미만: 감점 10점
- 800자 이상: 감점 20점

● <논제 III> (원고지 범위 내 자유롭게)

-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되어 있어 내용을 기준으로 채점

3) 원고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으로 간주한다.
-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한다.

3. 채점 기준 : 내용평가

1) <논제 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 ① 제시문 [가]~[바]는 공통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루고 있으며, 제시문 [가],[다],[마]는 사회를 개인들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실체라고 보는 관점(사회 실재론)으로, 제시문 [나],[라],[바]는 사회가 개인들의 집합체이며 개인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는 관점(사회 명목론)으로 분류하면 10점 가점
- ② 제시문 [가],[다],[마](사회 실재론)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 ③ 제시문 [나],[라],[바](사회 명목론)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요약했으면 10점 가점(표현력 등)

2) <논제 I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 ① 제시문 [사]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했으면 10점 가점
- ② 제시문 [사]의 논지를 통해 제시문 [가]의 문제점을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 ③ 제시문 [사]의 논지를 통해 제시문 [나]의 문제점을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 ④ 유사한 문장을 단순 반복하지 않고 문장 간의 구성이 긴밀하고 논리적으로 연결되면 10점(표현력, 창의력) 가점

3) <논제 II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 ① 수요량과 공급량의 1차 함수식을 정확히 구했으면 각각 5점씩 하여 10점 가점.
- ② 대마초 단속 전 시장가격, 거래량, 판매수입을 정확히 구했으면 5점 가점.
- ③ 대마초 단속 후 시장가격, 거래량, 판매수입을 정확히 구했으면 5점 가점.
- ④ 판단기준이 되는 r 값을 정확히 구했으면 10점 가점.
- ⑤ r 값의 크기에 따라 제시문 [바]의 내용이 일부만 타당함을 서술하면 10점 가점.

[제시문 출처]

- [가] 강운선 외(2014), 『고등학교 사회·문화』, 미래엔, p. 65.
- [가] 김광기(2007), 『뒤르캄 & 베버』, 김영사, p. 41.
- [나] 신형민 외(2014), 『고등학교 사회·문화』, 비상교육, p. 72.
- [나] 존 로크, 조현수 편저(2005), 『통치론』, 타임기획, p. 149, p. 153.(재구성과 윤문)
- [다] 신형민 외(2014), 『고등학교 사회·문화』, 비상교육, p. 74.(재구성)
- [다] 이진석 외(2014), 『고등학교 사회·문화』, 지학사, p. 63.(재구성)
- [다] 프란시스 들프슈 외, 부희령 옮김(2009), 『강요된 비만』, 거름, pp. 211-212.(재구성과 윤문)
- [라] 신동엽(1985), 『신동엽전집』, 창작과비평사, pp. 136-137.(재구성)
- [마] 신형민 외(2014), 『고등학교 사회·문화』, 비상교육, p. 71.(재구성)
- [마] 길정아(2013),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정당일체감: 유권자의 투표선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2(1), pp. 81-83.(재구성과 윤문)
- [바] KBS특파원리포트(2017), <프, 학교에서 대마초 피운다고?...합법화 논란>, 2017.03.24.(재구성과 윤문)
- [사] 강운선 외(2014), 『고등학교 사회·문화』, 미래엔, p. 76.
- [사] 김동일(2016), 『피에르 부르디외』, 커뮤니케이션북스, p. 35, pp. 40-41.(재구성과 윤문)

4.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19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오후) 논술고사의 주제는 “사회 실재론과 사회 명목론”의 구별이다. 이는 사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사회 형성에 있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이 문제는 학생들이 사회와 개인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극복하고 이 둘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

이 주제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과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지문과 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논술고사가 학생들의 통합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서적과 수리 계산 등 다양한 성격의 지문을 활용해 출제했다. 특히 사회 실재론과 사회 명목론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고등학교 사회·문화>에 나타난 내용을 발췌했으며, 이 주제는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사회·문화>(비상교육)의 71-72쪽, 74쪽, <고등학교 사회·문화>(미래엔)의 65쪽, 76쪽 <고등학교 사회·문화>(지학사)의 63쪽 등의 내용을 지문으로 사용하거나 재구성했다.

<제시문 출처>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사회·문화	강운선 외	미래엔	2014	65	제시문 [가]	○
뒤르캠 & 베버	김광기	김영사	2007	41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사회·문화	신형민 외	비상교육	2014	72	제시문 [나]	○
통치론	존 로크	타임기획	2005	149, 153	제시문 [나]	○
고등학교 사회·문화	신형민 외	비상교육	2014	74	제시문 [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이진석 외	지학사	2014	63	제시문 [다]	○
강요된 비만	프란시스 들프슈 외	거름	2009	211-212	제시문 [다]	○
신동엽전집	신동엽	창작과비평사	1985	136-137	제시문 [라]	○
고등학교 사회·문화	신형민 외	비상교육	2014	71	제시문 [마]	○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정당일체감: 유권자의 투표선택을 중심으로	길정아	한국정치연구 22(1)	2013	81-83	제시문 [마]	○
프, 학교에서 대마초 피운다고?...합법화 논란	KBS	KBS	2017	방송	제시문 [바]	○
고등학교 사회·문화	강운선	미래엔	2014	76	제시문 [사]	○
피에르 부르디외	김동일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35, 40-41	제시문 [사]	○

* 재구성은 지문의 논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과 과정에 충실했던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는 취지로 이루어졌음.

5.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된 실체로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와 행동을 구속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사회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정부의 권력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다]는 비판이 단순히 개인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조건과 구조적 환경의 산물이라고 본다. [라]는 국가의 개입과 간섭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의지에 따라 일하고 나눠 갖는 가상의 사회를 그리고 있다. [마]는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개인적 능력과 품성보다는 후보자가 속한 정당을 중시한다고 설명한다. [바]는 대마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법과 제도를 통한 처벌보다 개인 차원의 의식개선을 중시한다. [사]는 사회와 개인의 이분법을 넘어서 이를 매개하는 ‘아비투스’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논술고사의 논제는 일반논술 2문제, 수리논술 1문제 총 3문제를 출제하였다. 일반논술 문제는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력, 논리적 추론 능력, 비판 능력, 통합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논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 I]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의 글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첫 번째 관점은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된 실체로서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한다고 보는 사회 실재론이고, 두 번째 관점은 사회가 개인의 집합체에 불과하며 개인의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는 사회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사회 명목론이다. 수험생들은 주어진 제시문들을 실재론적 관점과 명목론적 관점으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들의 핵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문제 II]는 사회와 개인의 이분법을 넘어서 이를 매개하는 ‘아비투스’ 개념을 통해 실재론과 명목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문제다. 아비투스는 사회적 역사가 체화된 형태로 우리의 견해, 취향,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무의식적 성향 체계이다. 이는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적인 것으로 우리의 인체에 각인되어 있다. 가장 개인적인 몸조차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회가 외부에 있다는 사회 실재론과 사회는 단지 개인의 집합체라는 사회 명목론을 모두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문제 III]은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리적 모형을 적절히 구성하고, 이를 해석하여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이에 [문제 III]에서는 시장가격과 거래량 간의 관계를 기초수학의 교과과정에 나오는 1차 함수식으로 설정하여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법과 제도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식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추론하도록 하였다.